

오늘 경북도의회, 임시회... 추경 촘촘히 짠다

경북도정·교육행정 전반 걸쳐 현안사항 등 정책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346회 임시회가 23~새달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북도·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

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김재준(울진) 도의원이 첫 등원,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윤종호(구미)·신효광(청송)·김홍구(상주) 3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도의원은 통합신공광과 관련,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을 질문한다.

신효광 도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

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질문한다.

김홍구 도의원은 경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을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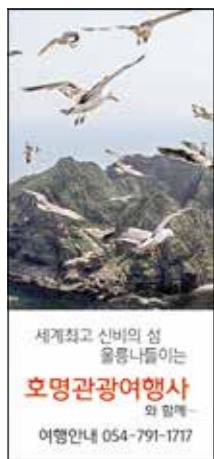
제2차 본회의는 새달 3일에 개의한다.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경주시,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경주시가 22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사진=경주시제공)



! 단체장 일정 !



주낙영 경주시장은 23일 오전 표암 재실에서 열리는 '표암재 춘향대제'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3일 오전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다.

예천박물관, 지역박물관 활성화 150억 투입

경북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예천박물관이 '2024 경북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과 자원을 토대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한다.

예천박물관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예천청단놀이, 개심사지 오층석탑 등을 접목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천박물관은 '도란도란 이야기가 꽃피는 예천박물관 나들이'로 '박물관에서 즐기는 전통문화'를 주제로 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짰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예천박물관은 문화유산과 접목한 놀이 위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들의 예술·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박물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수장고 증축사업 150억 △문화재청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문화재청 생생문화유산 사업 5000만원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대여사업 500만원 △2024 공·사립 대학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2300만원 등 약 15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지역박물관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명욱 기자

주낙영, 주사위는 던져졌다 2025 APEC 반드시 유치

경주·인천·제주 3파전 차별화된 정책 서면 현장실사 등 6월 도시 결정까지 전력 투구...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모든것을 걸었다. 주시장은 22일 시청 앞천홀에서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현안 및 역점사항을 보고 받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당부했다.

경북도 경주시민들의 최대 염원인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해 'Only 1 For APEC'이라는 비전 및 콘셉트로 지난 19일 외교부에 APEC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6월 도시 결정 때까지 전 직원들의 총력유치를 당부했다.

부산이 빠진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에 비해 경주가 지방 중소도시지만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호안전 최적,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용이, 국제행사 성공개최 노하우 등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의 여러 가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 시장은 4월 서면심사, 5월 현장실사·유치 PPT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사·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윤용찬 기자

영주, 침수피해 예방... 261억 투입 2028년까지 하천 9km 정비

영주시가 '석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행안부 '202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봉현면 노좌리에서 하천리 일대에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인 석관천을 정비한다.

시는 통수 단면, 제방 높이 부족으로 인

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261억원(국·도비 170억원)을 투입한다.

하천 9km 정비와 교량 18곳 설치 등 하천 시설물을 개량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 18개월간이다. 전성기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예천군, 비룡산 제2전망대 설치사업 착수보고회

예천군은 19일 군청에서 '비룡산 제2전망대 설치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군의장과 군의원 및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 전망대 기본설계

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룡산 제2전망대는 '풍경을 담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각 층마다 새로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극장 형태의 공간으로, 공연과 휴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독특한 전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군은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높이 30m, 연면적 1268㎡의 전망대와 109㎡ 길이의 전망데크를 조성, 오는 7월까지 설계를 완료 하고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예천군, 교육명품 도시... 쾌속운항

배움으로 행복 도시 예천
인재들 머무를 수 있도록
춤추는 그물망 체계 구축

예천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교육명품 도시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군은 2020년부터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단상마을학교와 봉사단을 운영해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고장 탐방, 청소년 품키움 탐방, 청소년 성장 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학교 독서골든벨,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다양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앞으로 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방과 후 특화 교육 과정과 대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글로벌시대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해 영어 원서 독서교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재가 떠나지 않는 예천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예천군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들과 협력해 공교육 발전으로 인재를 양tjdjgksek.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간다. 군은 경북도 교육청과 함께 경북형 돌봄거점센터와 늘봄학교 운영지원 등 은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K-인문 교육을 활용한 공교육 혁신모델을 정립한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한 K-인성교육을 강화한다. '학력신장 중학교'를 추진하고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IB교육) 시범 도입한다.

경북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조성되는 지식집단지산단지 등 지역 발전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인재들이 예천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군은 평생교육 전담 부서를 만들고 학습 거점 시설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평생 학습 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노력 결실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군 평생학습관과 경북도립대학교 평생학습원을 통해 취미, 건강, 재취업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초빙, 수준 높은 인문, 사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민의 지적경쟁력을 높이고 배움으로 행복한 도시 예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옥 기자

낙동 물량리 암각화, 경북도 문화재 지정

상주시,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행정력 동원



상주시의 비지정 문화재인 '낙동 물량리 암각화'가 경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상주 극락정사 아미타여래회도'도 비지정문화재 심의 대상에 선정됐다. '낙동 물량리 암각화'는 2017년 김상호(상주역사공간연구소장) 씨가 발견, 울산대학교 반구대연구소에 제보, 알려지게 됐다. 암각화는 상주 낙동면 물량리의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는 산자락의 해발 43m 나지막한 절벽에 위치하는 4개의 바위 면에 새겨져 있다. 사람을 주제로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사람 그림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선사시대 암각화는 동물, 기하학 문양, 칼

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린 이 암각화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었던 희소한 사례이다. 암각화는 새긴 기법과 상주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의 시기 등을 고려, 선사시대, 특히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선사시대의 예술과 신앙, 당시 사람의 얼굴과 옷 등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어 기념물로 지정됐다. 지난 3년간 상주시는 10건의 문화재를 지정 또는 승격했다. 현재 7건의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상주 극락정사 아미타여래회도'는 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도지정문화재 심의대상에 선정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낙동 물량리 암각화를 최선을 다해 관리·활용하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내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율·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경호 기자

상주시새마을회, 재활용품(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

상주시새마을회는 '2024 재활용품(고철) 모으기 운동'을 북천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진행, 450여 톤의 실적을 이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운동으로 생활 주변에 방치된 고철을 재활용, 환경오염 원인을 제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상주시새마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상주시 제공)



칠곡군, 특화작목 들녘특구 선정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 확보
농업대전환 모델 다양화 목표

칠곡군은 경북농업기술원 주관 '2024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시범운영' 추정 사업에 참여 특화작목 들녘특구로 됐다.

군은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사업은 지역별 고소득 특화작목을 유형별 연구기술로 정립하고 규모기반 공동영농과 R&D기반 특화기술을 접목, 농업대전환 모델 다양화를 목표로 칠곡군을 포함 도내 4곳이 선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한다.

칠곡군은 특화작목을 참외로 선정했다. 사업내용은 경북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개발한 참외 표복형 수경 재배와,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 신기술을 적용한 특화모델 구축이다. 1회 추경예산 확정 후 6월부터 사업대상자를 모집·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조미경 기자

구미, 새단장 경북 최다 파크골프장 '문 활짝'

7곳 225홀 파크골프장 전면 재개장
잔디생육 등 편의시설 개선 총력



구미시가 관내 파크골프장 7곳(장애인 파크골프장 포함)의 잔디 보습 및 생육을 위한 6주간의 휴장(3.11~4.21)을 마치고 22일 전면재개장했다. 시는 휴장 기간 흙길 주변 잔디 보습, 배토 작업, 잔디 보습 매트 및 복합잔디 설치, 주차장 차선도색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구미 파크골프장의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수세식 화장실 3개소 설치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 점용허가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 이은진 기자

며, 5월 중 완료한다. 시는 올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사업으로 최상의 파크골프장 환경을 조성한다. 재개장한 파크골프장은 구미시민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용일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팀 단위(3~4명, 최대 2팀)로 전화 예약 후 1일 총 200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225홀(장애인 파크골프장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최다 홀수의 파크골프장을 보유 중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대회 등 큰 행사를 유치해 파크골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부티산업 중심도시 힘차게 발돋움

5개 기업 타 지역서
본사 경산으로 이전

경산시가 화장품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 경산 화장품 산업의 거점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내 입주기업을 모집,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5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경산으로 이전, 동시 입주한다. 타 지역 5개 부티기업은 △대구 2개 사 (주)도나왕 사이언스, (주)제이스케이 △경주 2개 사 (주)케이씨테크놀로지, (주)알래스카드림 △김천 1개 사 (주)토브로이다. 이들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화장품·부티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경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보고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입주와 함께 본사 경산이전을 결정했다.

두피&모발 측정 관련 신기술을 지닌 (주)케이씨테크놀로지와 화장품 기업인 (주)토브는 경산시 K-부티 마케팅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 로프 불로나 미용전시회'에 참가, 총 18만 9500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장은 "경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부티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CGMP급 우수화장품 생산시설인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148종의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다. 시는 올해 '우수화장품 시설 구축사업'으로 △기업을 위한 화장품 제형 실험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마케팅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 등 기업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설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신경은 기자

문경시, 사과 주산지 명성 방방곡곡 떨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사과 주산지 문경시 영농현장을 방문했다. 방문에는 임이자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시·도의원, 농식품부 및 경북도 관계자, 관내 과수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사과 꽃가루 인공수분 현장 농가를 방문,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기를 활용한 시연회를 가졌다. 사과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꽃가루 은행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꽃가루 생산 방법 등을 논의했다. 시는 사과농가에 인공수분기 지원,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꽃가루 지원으로 개화기 불량한 기후환경에도 안정적으로 결실률을 높여 고품질 사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쓴다. 김동수 기자

왜관읍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왜관읍은 19일 오후 공무원, 이장, 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동정천과 흰가람둔치 일대에서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생활폐기물들과 풀숲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정비했다.

'모두 다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도시' 'ECO 철곡' 조성을 위해 3go(먼저 쓸go, 먼저 줍go, 먼저 치우go) 우리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 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차영식 왜관읍장은 "왜관읍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친환경도시 ECO 철곡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건천읍 남·여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활동

건천읍 남·여 의용소방대는 지난 19일 장애인 의 날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를 방문 집 청소 자원봉사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등을 하고 있다.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박모 어르신은 "평소 몸이 불편해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 힘들어 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의용소방대원의 도움 덕분에 깔끔해진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약

황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달달복지단, 특화사업 논의 의동읍, (주)HANTAL L&C와 함께하는 동네 빨래하는 날



지난 19일 황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달달복지단'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의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HANTAL L&C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이불빨래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경주시 마을마다 꾸러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을 찾아 이불빨래 세탁을 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펼치고 있다.

황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주시 황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달달복지단'은 지난 19일 지역 사회의 복지 발전과 향후 실시할 특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기회의에서 달달복지단의 신규위원을 소개하고 1분기 특화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시할 효(孝)꾸러미 지원 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논의했다.

달달복지단은 올해 남은 특화사업으로 '한가위 꾸러미 지원', '겨울나기 보온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기부 물품 전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 지원 활동을 한다.

류천희 민간위원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람찼으며, 앞으로도 달달복지단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칭 상생복지단)는 지난 19일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주)HANTAL L&C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이불빨래 세탁을 무상 지원했다.

행사는 외동읍 상생복지단의 이불빨래 특화사업으로 대형 빨래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 후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세탁과 건조는 린넨리스·세탁사업을 하는 지역 기업 (주)HANTAL L&C에서 지난 2019년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매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인배 대표이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 의지 선포

경주시, 전국 최초 민간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경주시가 22일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은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선포식에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 사도의원,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4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구호제창을 통해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앞장서겠다'는 경주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선포했다.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탄소중립약속 배지는 탄소중립 실천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배지를 착용한 한 시민들 대다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전 세계적 과제다.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동참했다.

산업·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이행주체인 경주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선포식에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전략수립 단계부터 시민의견 수렴, 시민실천운동과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수립 등 경주시 탄소중립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선포식에서 발표한 17개 기관단체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다짐은 경주시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큰 응원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각자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경주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참석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청 어린이집 원아들의 환경노래합창 기념공연은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윤태열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환경오염과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따른 반성과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며 "경주시의 환경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실천, 경주부터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선포식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구촌의 주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구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ESG경영 모범도시 실천 로드맵 설정 △2050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추진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시행 △탄소중립 실천 추진전략 구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대상, 2024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사는 경주시 주최,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했다.



지난 21일 황오동 청년회 주최 2024년도 황오동민 화합한마당 및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 황오동민 화합한마당 경로잔치

풍물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덤행사 어르신께 즐거움 선사

황오동민 화합한마당 및 경로잔치가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 및 어르신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5회째를 맞이한 이번 황오동민 화합한마당 및 경로잔치는 황오동 청년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박승직 도의원, 이동현 시의원, 정희택 시의원, 최미리 황오동장 및 황오동 자생단체장과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주민들에게 대접하고 50여 명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원

봉사자로서 행사지원을 도왔다.

풍물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지지 이어가기에 동참,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손팻말을 배부하며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유치 후 기대효과 등을 홍보했다.

윤원주 청년회장은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황오동 청년회원들 및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 하루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고 청년회에서 준비한 잔치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지지 이어가기 동참에 감사드리고,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5월부터 '경주브랜드콜'로 통합 운영

경주시 신라콜 법인택시 319대, 침성대콜 개인택시 647대 운영

경주지역 콜택시 서비스인 '침성대콜'과 '신라콜'이 새달 1일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경주시는 2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침성대콜 개인택시지부와 신라콜 법인택시연합회로 이원화돼 있는 콜택시를 '경주브랜드콜'(이하 경주콜)로 통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재봉 경주개인택시지부장, 이동철 법인택시 연합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기업의 택시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택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경주시와 택시 업계가 뜻을 모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이다.

업무협약으로 경주시는 경주콜 센터 사무실 보수와 차량 갱년 및 맵핑 교체 등의 디자인 변경 예산을 지원한다.

통합 경주콜 센터 사무실은 기존 개인택시지부인 침성대콜을 이용한다. 경주개인택시·법인택시는 경주콜 운영을

위한 콜 수락·전철 등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수 종사자 관리, 통합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4월 현재 신라콜(법인택시)은 콜택시 319대, 침성대콜(개인택시)은 콜택시 647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콜센터의 통합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가능성이 높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역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통합택시 경주브랜드콜 업무 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좌로부터 이동철 법인택시 연합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재봉 경주시개인택시지부장)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영덕가족센터, 결혼이민 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영덕군가족센터는 2~4월까지 결혼이민여성의 재능발견과 개발을 위해 디지털 마스터 자격증 교육을 한다.

교육은 결혼이민여성 12명이 참여, 하루 2시간 30분씩 총 10회 동안 디지털 마스터 이론교육 및 실습이다.

교육을 통해 전문 자격증(디지털 마스터)을 취득, 취업 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참여 결혼이민여성 12명 중 11명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고, 응시생 전원 합격이 예상된다.

영덕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지원 교육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기 2568년 봉축점등식 봉행

청도불교사암연합회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지난 19일 바르게살기공원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봉축점등식은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 자비와 지혜의 불빛을 밝히고 군민의 안녕과 균형 발전,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했다.

청도불교사암연합회장인 지행스님은 봉행사에서 "밝히는 등불 빛이 어둠을 밝혀가듯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 밀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송군,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박차!

청송군은 지난 1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농촌협약위원회 및 행정협의회를 동시 개최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주요 협의와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 부군수와 주민대표, 실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청송군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투자, 협약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 청송군은 2024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자연' 지키고 '생명' 사랑하고 실천해요

울진군, 한살림재단과 함께 산양서식지 생태복원 행사

울진군은 지난 19일 한살림재단 및 한살림연합의 후원으로 (사)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와 함께 천연기념물 울진 산양서식지 생태복원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2022년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의 산림과 산양서식지의 생태복원을 위해 한살림재단과 한살림연합의 기부금(2천만원)으로 마련됐다.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은 멸종위기종 생태복원 지원, 자원 재사용 실천, 제철 먹거리 소비 활성화 사업 등 평소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대형 산불로 집단 폐사 위기에 처한 울진

산양을 위해 조합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다.

김경하 (사)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장은 "산불에 최근 대살까지 겹쳐 전 세계 최남단 산양 집단서식지인 울진의 산림이 많이 파괴됐다.

한살림재단의 관심과 후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천연기념물인 울진 산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박세은 부군수는 "요목심기 및 씨앗 뿌리기 행사는 토양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존할 수 있어 산림을 재생하고 동식물을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숲으로 변모시키고 울진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정수 기자



비전 2040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군민 워크숍

일시 2024.04.20.(토) 11:00
장소 청도군청 대회의실
GDI 경북연구원 청도군

청송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서두르세요

청송군은 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마감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청송군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군청 산림자원과와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김하수, 행복 청도 미래 성장 주춧돌 놓는다

비전 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 군민 공동연수

청도군은 '비전 2040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군민 공동연수'를 가졌다.

청도의 비전 계획수립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공동연수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경북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다듬어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행복한 청도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군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공감과 합의를 위해 세대 내(內), 세대 간(間) 속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자 읍면·단체·위원회로부터 참여인원을 추천받아 실시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조별로 나눠 '청도의 현재 삶

과 미래의 청도에 대한 난상토론과 함께 경북연구원의 청도군 중장기 발전 비전과 설정 방향 및 핵심 가치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군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읍면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군민 참여 워크숍 등을 추진,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 공동연수, 2차 읍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 내년 2월 마무리한다.

조어은 기자

울릉군, 창의적인 정책 개발 U-Box 2기 모집

100만 관광객 시대 대비 창신한 아이디어 제안...

울릉군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U-Box(아이디어 상자) 2기를 모집한다. U-Box(아이디어 상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총 1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앱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안내관 구축, 울릉도 NEW 랜드마크 조성 등 울릉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다.

하지만 U-Box 1기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의 중복성 판단과 심사의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등 첫 시행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사업들을 제시했다는 점과 공직의 자부심과 사기를 독려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U-Box 2기는 1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

심사위원 선정 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임, 자체 배정을 늘려 국외 연수 경험이 없는 공직자에게 기회를 확대 구성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사업 추진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울릉공항 개항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U-Box 2기는 향후 추진되는 제5차 도·시·군 합계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국·내외 정책 우수 사례를 연구과제로 선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재정 운영 효율·투명성 높여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영덕군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

결산 검사는 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김성철 영덕군의회원을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들은 법령 등에 따라 회계사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이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애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간다"고 말했다.

조어은 기자

울릉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발대식

고독사 위험 사회적 고립 예방 노력 동참

울릉군은 지난 19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및 발대식을 가졌다.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자살 및 고독사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 인적안전망 구축,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이다.

강의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박현수 주무관이 진행했다.

발대식에서 게이트키퍼 활동 인력은 신속한 위기기후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게이트키퍼가 위기기후 발굴 시 즉시 읍·면 사무소 및 군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보·신고하는 역할을 부여해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발대식에서 참석자를 격려하고 "군에는 1인가구와 노인기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게이트키퍼 여러분이 중심이 돼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신속한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4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42%다.

경북은 46%, 울릉은 63%(전체 5649세대 중 1인세대 3568세대, 이 중 60세 이상 1인세대 1526세대)이다.

정윤환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봉화군의회,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임법·법률공문 운영 조례안 △봉화군 한국수하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또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400억 원) 대비 870억 원이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화군,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 지난 15일 배치 완료

봉화군은 지난 15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의과2, 한의과 4, 치과 1)을 배정받아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의과 2명 감소로 관내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봉화군은 보건지소 2개소씩 권역별 순회진료를 시행해 법전·소천·명호·상운면보건지소 월수·금 주 3회, 몰아·봉상·출양·재산면보건지소 화·목 주 2회 운영 중이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군보건소 및 오지지역인 석포면보건지소를 상시 운영해 봉화군민에게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8일 신규 공중보건의사들과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매년 줄어드는 공보의 수와 의료계 파업에 따른 파견 등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격려했다.

박군수는 "봉화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성주군 참:한숲의 철쭉꽃 만개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129-1번지 일대로 2.8ha의 면적에 17만여 본의 철쭉이 4월 중순부터 개화해 분홍빛 장관을 연출한다. 군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주휴게소 뒤편 산복 파헤치 일대에 대규모 철쭉단지를 조성해 황폐해진 산림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지역학생 꿈이루는 밑거름 위한 나눔 실천...

별사랑봉사회·영천중앙로타리클럽 명성그리드 (재)영천시장학회 기탁

영천시장학회에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별사랑봉사회에서 300만원, 영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100만원, 명성그리드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별사랑봉사회는 2008년 결성돼 지역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봉사활동 모임으로 영천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33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효성 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며, "영천의 학생들이 훗날 지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천중앙로타리클럽은 1995년 창설된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도 동참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곽경식 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영천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훗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탁취지를 밝혔다.

북안면에 위치한 명성그리드는 토목용보강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영천시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영애 이사장은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욱 정진하여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기탁취지를 밝혔다.

최기문 이사장은 "영천과 영천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꿈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은하 기자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생명의 기운 흠뻑...

성주태실에서 태교 힐링여행 1박2일



성주군은 성주 태교 힐링여행 1박2일태교 여행 상품을 운영했다.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태실실 일원에서 가졌다.

이 상품은 군의 사적지인 생령이라는 고유한 컨텐트를 품은 세종대왕자 태실을 중심으로 임신부나 예비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체험형 사업으로 2021년 문화재청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첫날, 임신부를 포함한 가족, 예비 임신부 등이 참가해 세종대왕자 태실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와 함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받았다.

이어서, 수호사찰인 선석사 느티나무아래 지역의 특산품인 참외를 이용한 오감만족, 예비맘 태교 맘마 파티 등 참가자들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민속마을인 한개마을에서 이루어진 아가

데미에서는 '소중한 아기, 태교 & 출산아카데미'는 심쿵, 순산요가 & 마사지체험, 10달 태교 음식소개와 자궁자궁서트를 들려 주며 전국의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했다.

둘째날은 가야산에서 즐기는 야생화 꽃차시음과 함께 자연속 태교여행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임신부가 타고 있어요"라는 차량 스티커를 제작·부착해서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을 기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시대에서 생명의 고장답게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 저출산 극복하고 국내 태교 여행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참가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도재훈 기자

영천시, 기업과 직장인 손잡고 마음건강 케어

영천시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금창을 방문해 직장인의 행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업무 부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감정 표출 프로그램 닥트 던지기, 송판 격파 등이 진행됐으며, 더불어 생명사랑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이동상담 차량 '마음사랑방'을 활용해 전문적인 1:1 상담 및 검진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한편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54-331-6770) 또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전화(10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하 기자

(사)영주시관광협의회 '플리마켓 이음' 행사 개최

원도심 관광 중심 '이음센터'에서 지역 업체 생산·판매 특산물 홍보



영주시 '플리마켓 이음' 행사가 오는 26일 영주시 이음센터(영주시 명륜길 7)에서 개최된다.

영주 지역 업체 12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개소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소통 플

랫폼으로 운영 중인 영주 이음센터를 알리고, 지역 업체가 생산 및 판매하는 특산물을 홍보·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미국 에프디에이(FDA) 승인을 받은 수제떡볶이(플라미) △소백산 딸기를 활용한 딸기청(소백산 딸기청) △지역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우유를 활용한 요거트(호수목장) △소백산자락에서 생산된 도라지를 활용한 가공식품(도라지미) △청정영주한우를 조리하게 쉽게 만든 밀키트(황토골인삼불고기) △풍기 인삼을 활용한 인삼막걸리(영주탁주) 등이다.

(사)영주시관광협의회가 지난해 5월부터 5년간 관리위탁을 맡아 주민과 관광객의 쉼터 무인카페, 회의실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외국인 선생과 함께 하 우리아기 첫 영어 책놀이

고령군 다산도서관,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영어 책놀이 개강

고령군 다산도서관은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peek-a-boo-우리 아기 첫! 영어책놀이"를 지난 20일 개강했다.

관내 24~40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자료실에서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8회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와 아이가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영어 그림책을 통해 소통하고 놀이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창의력, 사고력, 관찰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및 오감발달을 비롯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그림책 선택에 관한 부모 교육도 포함된다.

책놀이에 참가한 주민은 "외국인 선생님께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시니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높았고, 아이와 함께 책을 통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매주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책 육아를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우리아기 첫! 영어책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폭넓은 독서경험을 쌓고, 도서관에서 아이와 부모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이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문경찻사발축제...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축제

명예문화관광축제 2024...
문경찻사발축제 27일 개막
문경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새로운 먹거리 관람객 선택

2024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가 오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문경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이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전통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다변화된 도자기 수요에 맞게 생활자기 라인업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찻사발축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축제장 이용을 위한 전용차선 셔틀버스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축제 구성원 모두 친절하게 축제를 준비, 더욱 많은 관람객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또 오고 싶은 축제장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문경찻사발축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자기축제다.

전통찻사발의 확립된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 생활자기의 대중화를 목표로 새롭게 다양한 도자기 라인업과 전시·체험행사, 특별행사와 새로운 먹거리까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알찬개폐막식 행사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축제 첫날의 개막식에는 문경시 홍보대사인 박서진과 박군, 주미와 더불어 조명섭, 영기가 출연, 흥겨운 공연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 마지막 날 폐막식에는 통일메아리아와 단과 하랑(구 초코파이브), 윤윤서양이 출연, 축제를 마무리하는 무대를 가진다.

올해부터는 야외공연장에 대형 비가림시설이 설치, 우천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이 가능해져 날씨와 상관없이 많은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 이튿날인 28일에는 인플루언서(미스대구·경북)가 각종 체험과 전시장 투어로 축제장을 누비며 자유롭게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위드미포도' 행사를 진행해 축제장에 흥겨운 분위기를 더해 준다.

■새로운 커피사발 판매 시도

지난해 부터 시작된 생활자기의 대중화 시도에 따라 이번 축제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찻사발과 도자기를 요양에서 판매한다.

올해는 기존 찻사발과는 다르게 유리에 가깝게 강하게 구워낸 개성있는 커피사발을 도입, 축제 기간 중 한정 물량을 판매, 행사 프로그램에서 상품으로도 제공한다.

추가로 관내 청년들이 운영하는 유명 커피전문점과 함께하는 커피사발을 활용한 커피 이벤트도 축제기간 중 새롭게 구성, 매년 계속 키워나간다.

■특별 전시관 설치

축제 대표 전시 콘텐츠로 루마니아와 중국이 실시의 도예작가와 우리시 무형문화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부스태이너 특별전시관이 문경새재 1관문 앞에 설치된다.

국제교류전에는 김선식 축제추진위원장과 해외 도예 시연행사로 연을 맺은 루마니아의 최고 명망있는 다니엘 레스작가가 참여, 본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직접 관람객 앞에서 시연하는 시간도 갖는다. 문경시와 해외 자매결연 지자체인 중국 이상시에서는 연료와 경력이 있는 작가가 전시회에 참여하여 양도시의 우애를 쌓고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다.

문경시를 대표하는 무형 문화재 특별전에는 백산 김경옥, 묵심 이화천, 문산 김영식, 미산 김선식까지 도자기 장인들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흔이 담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원화된 광화문 무대

축제의 눈길을 끄는 점으로 오픈세트장 내 광화문의 대형LED 설치와 광화문 무대의 일원화가 주목된다.

800인치의 대형LED로 모든 축제영상과 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고 망망이 가마역시 화려한 영상으로 구현, 웅장한 매력을 표현한다.

기존 광화문 무대와 저잣거리 무대의 일원화된 무대를 확장된 광화문 무대로 일원화하고 저잣거리쪽은 체험과 먹거리로 구성한다.

세트장을 구역별로 구분, 세트장 구성구석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 커진 광화문 무대에서는 발물레경진대회, 다화경연대회, 읍면동 시민의 날 등 축제의 메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백종원 '돼지국밥' 팝업스토어의 등장

광화문 무대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저잣거리에는 식당용 돛부스를 설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제먹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투자를 식당가를 구성한다.

문경새재 식당들이 직접 참여, 풍성하게 저잣거리를 우리 음식으로 채운다.

이달 초 개원한 백종원 대표의 다분외식산업 개발원이 돼지국밥 팝업스토어로 축제에 참여해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업그레이드 된 원픽패스권

특별체험행사로 기존의사기장의 하루에서 진화된 슬기로운 도예생활이 메인 체험행사로 구성된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직접 사기장의 제작자가 되어 체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단순히 시연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찻사발 빚기'와 '찻사발그림그리기', '다례체험', '디지털 아트전시', '풍선공연' 등 가족·연인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찻잔 구입권과 축제 내 체험, 경품추첨권, 관내 관광지 할인까지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시도였다. 평을 받았던 원픽패스권은 올해 개장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까지 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판매된다.

찻사발축제 누리집을 통한 사전 구입시 원래 가격(2만원)에서 할인된 가격(1만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선물과 단체 구입도 가능하여 사전판매로 축제를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게 된다.

■'한복패션쇼'

축제의 다양한 부대행사 차원에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한복패션쇼'는 축제기간 중 시내가 공동화한다는 의견에 따라 점촌 문화의거리로 위치를 옮겨 열린다.

30여 명의 한복 모델들이 패션쇼와 거리행진을 하고 사전행사로 명인의 줄타기와 북소리 퍼포먼스, 도예작가들의 발물레 시연도 함께 진행된다.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이와 같은 축제 장소 확대 외에도 관내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변화를 꾀한다.

김선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지난해 부터 전통 찻사발에서 생활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통해 변화를 시도해 왔고, 올해는 커피사발과 같은 새로운 도전으로도 도예 산업의 부흥과 지속적인 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